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동화 읽기를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



濟州大學校 大學院

哲學科

尹 門 珣

2010年 8月

碩士學位論文

동화 읽기를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



濟州大學校 大學院

哲學科

尹 門 珣

2010年 8月

A Study on Philosophy Education for Children
by Tale Reading

Kyoung-Sun Yoon

(Supervised by professor Yong-Taek Y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0 . 8 .

Department of Philosophy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동화 읽기를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

指導教授 尹 龍 澤

尹 門 珣

이 論文을 文學 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8月

尹門珣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印

委 員_____印

委 員_____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0年 8月

차 례

I. 서론	1
II.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	5
1. 어린이 철학교육에 대한 두 입장	5
1) 피아제의 어린이 철학교육 부정론	5
2) 립맨과 매튜스의 어린이 철학교육 긍정론	7
2. 어린이 철학교육의 역사와 필요성	10
1) 어린이 철학교육의 역사	10
2) 어린이 철학교육의 필요성	11
3. 어린이 철학교육의 목적과 내용	13
1) 어린이 철학교육의 목적	13
2) 어린이 철학교육의 내용	15
III. 동화 읽기를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의 이론적 근거	17
1. 동화와 어린이 철학교육	17
1) 동화읽기를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의 가능성	17
2) 동화읽기를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의 필요성	18
2. 비판적 읽기와 어린이 철학교육	20
1) 비판적 사고와 비판적 읽기	20
2) 비판적 읽기와 동화	23
3. 어린이 철학교육을 위한 대화와 토론수업	25
1) 어린이 철학교육과 대화법	25
2) 어린이 철학교육과 토론수업	27
3) 어린이 철학교육과 철학적 탐구공동체	29

IV. 동화 읽기를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의 실제	32
- 『행복한 청소부』를 중심으로-	
1. 철학수업을 위한 학습 계획안	32
2. 행복에 대한 의미지도 그리기	34
1) 행복의 의미	34
2) 행복의 의미지도	35
3. 대화법과 토론수업의 실제	38
1) 『행복한 청소부』 내용과약	38
2) 대화법의 실제	39
3) 토론수업의 실제	40
V. 결 론	44
참고문헌	47
<Abstract>	49



I. 서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시대는 정보 통신의 발달로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고 이를 공유하는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사람들은 기존의 진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여 독창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갖춘 역량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넘쳐나는 정보와 지식 중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나 지식의 단순한 전달보다 독창적이고 다원적 사고력을 갖춘 사람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육의 중심에 있는 학교교육은 이러한 사고와 능력을 갖추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어서 다양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일방적 사고의 틀을 주입하고, 획일화된 사고방식의 한계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철학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철학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동시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방법의 문제가 대두된다. 교사가 어린이에게 철학을 전수하기 위해 이를 주입식으로 전달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철학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어린이에게 철학 이론과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철학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철학적 사고는 학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철학적 사고는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찾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폭넓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어린이 철학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철학교육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부정론과 긍정론이 양립하고 있다. 먼저 피아제는 어린이들은 철학적 사고가 어렵고, 발달특성에 따라 어린이는 의존적, 문제의식 부족, 비자율적이므로 철학교육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립먼과 매튜스의 입장을 살펴보면 철학은 어린 시절에 적합하고, 어린이들은 철학에 대하여 자발적 관심이 있으며, “왜”라는 질문과 물음 제기를 끊임없이 한다는 점에서 어린이 철학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어린이 철학교육자들은 철학을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근원과 의미를 탐구하는 사유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어린이 철학교육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 철학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흥미를 유발하고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아동문학의 하나인 동화를 비판적으로 읽고 난 후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의 사고력은 깊어진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직접 겪지 않아도 동화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나 갈등 상황 속에서 제기될 수 있는 철학적인 문제를 간접 체험하게 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화읽기를 통한 철학교육 방법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동화읽기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로는, 허필남(2004)의 「생각 키우기를 위한 철학 동화 토론 활동에 관한 반성적 실천 연구」, 문계연(2006)의 「어린이 철학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소연(1997)의 「초등학교 ‘읽기’교과서의 철학교육적 접근」 등이 있다. 이들은 어린이 수준에 맞는 철학 동화와 동화를 중심으로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어린이 철학교육에 접근하는 법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동화읽기를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어린이 철학교육은 1920년대에 유럽에서 태동하였지만 1970~1980년부터 미국에서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철학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많은 연구와 이론서들이 ‘어린이 철학개발 연구소(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Philosophy for Children, 이하 IAPC로 약함)¹⁾의 어린이 철학교육 프로그램의 이론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 따르면 어린이의 사고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오늘날 어린이 철학교육자들은 어린이와의 철학적 대화를 통하여 어린이들도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린이 철학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어린이 철학교육의 가능성과 관련된 국내

1) IAPC는 1969년에 M. 립먼과 A. 마거릿 샵에 의해 설립되어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의 이론과 지도를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 있는 연구소이다. 유치원부터 12학년(우리나라의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연구들로는, 조미옥(2001)의 「초등학교에서 철학교육의 가능성 탐색」, 박인정(2008)의 「어린이 철학교육의 가능성 탐색」, 이은주(2009)의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의 가능 근거」 등이 있다.

어린이 철학교육의 방법론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로는, 박윤화(1990)의 「사고력 향상을 위한 어린이 철학교수법 고찰」, 이인혜(2007)의 「어린이 철학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방법에 관한 고찰」, 강은미(2008)의 「어린이 철학교육 방법의 한 모형」 등이 있다. 이들은 어린이들에게 어려운 철학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기보다는 ‘철학함’을 통해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철학교육의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철학교육은 어린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참고하여 철학함의 교육방법으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과 토론수업 그리고 철학적 탐구공동체²⁾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어린이 철학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오늘날 어린이 철학교육론자인 립맨과 매튜스의 이론을 지지하면서 어린이 철학교육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린이에게 친숙한 동화를 가지고 대화와 토론의 방법으로 어린이 철학교육에 접근하고자 한다.

제II장에서는 어린이 철학교육을 ‘철학함’의 교육으로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학을 난해한 학문이 아닌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근원과 의미를 탐구하는 사유 활동으로 보았다. 그러면 어린이 철학교육은 가능한지, 어린이 철학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제III장에서는 동화읽기를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의 이론적 근거로, 동화와 철학은 상호 보완적이고 통합적인 관계에 있다는 전제하에, 동화를 이용한 어린이 철학교육의 이론적 근거들을 살펴볼 것이다. 어린이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많은 동화 속에는 철학적인 논쟁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동화에는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삶과 모습을 반영하고 있어서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런 동화를 통해 논리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항상 ‘왜’라는 물음 제기

2) IAPC는 수업 방식으로 ‘탐구 공동체’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M. 립맨은 피어스와 듀이가 창안한 개념인 탐구 공동체를 교육에 적용하여 철학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 탐구공동체는 ‘탐구’와 ‘공동체’라는 두 개의 기본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대화를 통해 동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제로 어린이들과 『행복한 청소부』를 읽고 요즘 어린이들의 행복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한다. 어른이나 어린이나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자신의 삶과 직업에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청소부를 통해 행복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실제 토론수업을 진행해볼 것이다.

어린이들은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논리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특히 철학적 논쟁거리가 있는 동화를 가지고 철학적 탐구공동체를 구성하여 대화하고 토론을 한다면 생각하는 힘, 즉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II.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

1. 어린이 철학교육에 대한 두 입장

1) 피아제의 어린이 철학교육 부정론

어린이 철학교육에 대한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본 사람은 피아제(J. Piaget)이다.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은 그 어떤 심리학 이론보다 어린이의 인지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린이의 인지능력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지능력과 특정연령과의 밀접한 관계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의 인지발달이론은 인지발달단계가 다음의 네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는 데 기초한다.

약 2세까지를 '감각 운동기'라 하여 대상에 대한 외현적 활동을 통해 세계를 이해한다. 감각 운동적 도식의 상호통합에 의해 점진적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대상영속성 개념이 획득된다. 2세부터 6세까지는 '전조작기'로 표상이 형성되며, 이를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내재적 사고가 가능하나 자기중심성, 비가역성 등의 한계를 지닌다. 6세부터 12세까지로 '구체적 조작기'로 사고에 있어서 가역성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이전 단계에서는 불가능했던 보존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아동은 구체적 사물이 자신의 사고과정을 뒷받침해주는 한에서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본다. 12세 이후의 '형식적 조작기'가 되면 여러 형태의 보존 개념이 형성되며, 분류와 관계적 추론능력이 획득된다. 이 때에는 가설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고, 가능성과 실재간의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통합이 가능하게 된다.³⁾

피아제는 이러한 인지발달단계가 단계별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았다. 피아제는 6-12세에 해당하는 구체적 조작기에는 전조작기와는 달리 일종의 보존개념을 형성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구체적 사물이 자신의 사고과정을 뒷받침하는 한에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논리적-형이상학적 철학 탐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피아제는 어린이의 사고가 자기중심적 사고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3) 송명자, 『발달심리학』, 학지사, 1995, 94-133쪽 재인용.

이런 자기중심성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말한다. 그것은 논리적 형태와 존재론적 형태이다. 그리고 피아제는 어린이가 어떤 사고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심리학적 실험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나타낸다.

1.반복: 낱말과 음절의 반복만을 다루고자 한다. 아동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나, 때로는 의미가 통할 말을 한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그저 말한다는 즐거움으로 반복한다. 이는 분명히 어떠한 사회적 성격도 없는 유아기 혼잣말의 잔존물에 불과하다.

2.독백: 아동은 소리 내어 생각하는 것처럼 혼자 말한다. 누구에게 향해서 이야기 하지 않는다.

3.이중 또는 집단독백: 우리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사고에 있어서는 타인과 관련되어 있으나, 타인이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거나 자기 말을 알아 들어주기를 기대하지 않는 어린이들 간의 역설적인 대화가, 집단독백이라는 표현 속에 내포된 모순을 통하여 상기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견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타인의 존재는 단지 하나의 자극이 될 따름이다.⁴⁾

피아제에 따르면 “자기중심적 사고는 세계와 나를 구분할 수 없고, 모든 생각이 자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타인과 관계하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고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논쟁도 어떤 현상의 왜 또는 어째서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생각을 교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쟁에서도 결코 ‘왜냐하면’ 또는 ‘때문에’의 논리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 하지 않는다”⁵⁾고 말했다. 어린이들에 있어서 논쟁은 어떠한 논리적 타당성을 시도하지 않은 채 단순히 주장하는 것으로 논리적 타당화의 동기가 없는 ‘원시적 논쟁’에 속하게 된다.⁶⁾

피아제의 이론은 현실적인 면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지만 어린이의 철학적 사고 능력은 무시한 채 단지 연령에 따라 어린이를 일정한 틀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도 비판받고 있다. 이런 피아제의 인지

4) J. 피아제, 『아동의 언어와 사고』, 송명자 외 옮김, 중앙적성출판사, 1985, 10쪽.

5) 위의 책, 25쪽.

6) 위의 책, 25쪽.

발달이론에 의하면 구체적 조작기인 어린이 시기에는 철학교육이 불가능한데, 그 이후에야 본격적인 철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사고력은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연습에 의해 신장시킬 수 있다. 사고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어린이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물음에 접근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어린이들이 반성하고 끈질기게 탐구를 해나가게 된다. 이처럼 어린이 철학교육은 인지발달단계라는 틀에 맞추기보다는 무한한 어린이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어떻게 풀어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2) 립맨과 매튜스의 어린이 철학교육 긍정론

어린이 철학교육은 1920-30년대부터 진행되다가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본격적인 어린이 철학교육이 활성화된다. 특히 1960년대 후반 컬럼비아 대학 철학과 교수였던 립맨(M. Lipman) 교수가 어린이 철학교육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어린이 철학교육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대학의 문제상황 때문이었다.⁷⁾ 립맨 교수는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 습관이 굳어지기 전에 사고 훈련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후 립맨 교수는 어린이 철학교육을 위한 책을 펴냈고, 이를 실제 교육에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게 된다. 그는 ‘어린이 철학개발 연구소 (이하 IAPC)’를 설립하여 꾸준히 철학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고 있다.⁸⁾

IAPC에서는 유치원부터 12학년(우리나라의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대상인 프로그램만 살펴 보겠다.⁹⁾ <엘피> 프로그램은 유치원부터 2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교사용 지침서는 《함께 생각하기》, <픽스> 프로그램은 3-4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교사용 지침서는 《의미 찾기》, <해리 스톨마이어의 발견> 프로그램은 5-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교사용 지침서는 《철학적 탐구》, <토니> 프로그램은 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교사용 지침서는 《과학적 탐구》이다.

7) 박민규, 「어린이 철학교육과 초등논술교육」, 『철학논총』43, 새한철학회, 2005, 29쪽.

8) M. 립맨 외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 서울교육대학 철학연구동문회 편역, 서광사, 1986, 65-67쪽 참조.

9) IAPC가 말하는 어린이는 대학 이전의 모든 학생을 지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초등학생을 지칭하는 의미이다.

IAPC 프로그램 교재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야기’형식을 취한다는 점이다.¹⁰⁾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철학소설로 되어 있으며, 이 소설을 읽고 토론을 벌이고 연습문제를 푸는 단계로 진행된다. 이 이야기들은 어린이가 좋아하는 이야기 형식의 교재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철학을 접하게 하였다.

매튜스(G. B. Matthews)는 대학생들에게 철학개론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다 어린이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¹¹⁾ 대학생들은 철학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심오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의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매튜스는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미 철학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대학생들 자신이 아주 어린 시절에 자발적으로 철학적인 호기심을 가졌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나 친구, 친지들이 어린이들과 나눈 대화를 토대로, 이 시기의 어린이들이 피아제가 보았던 어린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¹²⁾

사라: “아빠, 플러피가 어떻게 벼룩을 옮아왔는지요?”

나(매튜스): “아, 이미 벼룩이 옮았던 고양이하고 놀았기 때문일 거야. 그 고양이에게 있던 벼룩이 뛰어 플러피에게로 온 거지.”

사라: (잠시 생각한 후) “그러면 그 고양이 어디서 벼룩을 옮았지?”

나: (다시 이야기가 돌아가는 것에 흥분하여) “아, 아마 다른 고양이한테서일 거야.”

사라:(이젠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그렇지만, 아빠, 그렇게 끝없이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영원히 계속되는 건 숫자밖에는 없어요.¹³⁾”

매튜스는 그의 딸과 나눈 대화를 토대로 어린이의 언어세계를 보면 유추와 같은 형식적 사고 작용을 하며,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논리성 등을 예로 들면서 어린이도 미숙하지만 추론의 과정을 밟는 등 연령에 따른 발달단계를 넘어서 추상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⁴⁾ 그리고 그는 어린이들이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10) 이인혜, 「어린이 철학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방법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45쪽.

11) G. B. 매튜스, 『어린이와 함께 하는 철학』, 서울교육대학 철학연구동문회 옮김, 서광사, 1987, 8쪽.

12) G. B. 매튜스, 『어린이를 위한 철학 이야기』, 황경식 외 옮김, 샘터, 1988, 188쪽.

13) M. 립맨 외, 『세 살 철학 여든까지』, 여훈근 외 옮김, 정음사, 1986, 207쪽.

14) G. B. 매튜스, 『어린이와 함께 하는 철학』, 서울교육대학 철학연구동문회 옮김, 서광사, 1987, 61-82쪽.

가 없는가를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반철학적 편견에 동화되기 전에 아이들을 여기저기서 뽑아서, 그 아이들에게 묻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아이들이 정말 자연철학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⁵⁾

이처럼 우리가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것은 어린이들이 던지는 철학적 질문이다. 어린이는 “본질적으로 철학적 물음을 안고 있고,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순수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고 한다.¹⁶⁾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죽은 다음 삶은 있을까?’, ‘왜 공부를 해야 할까?’, ‘마음은 왜 자꾸 변하는 것일까?’, ‘내가 어른이 되면 지금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까?’, ‘나는 행복할까?’ 등 이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살고 있다. 어린이는 이런 철학적인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사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알맞은 철학적 훈련만 한다면 어린이 철학교육은 충분히 가능하다.

매튜스는 자신이나 친구, 친지들의 어린이들과 나눈 대화를 토대로 어린이들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처럼 몇몇 어린이의 예를 가지고 어린이가 철학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은 얼마간의 가능성을 통해서 나머지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그 역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성의 길은 열려 있다.

15) M. 립먼 외, 『세 살 철학 여든까지』, 여훈근 외 옮김, 정음사, 1986, 110쪽.

16) G. B. 매튜스, 앞의 책, 44쪽.

2. 어린이 철학교육의 역사와 필요성

1) 어린이 철학교육의 역사

어린이 철학교육은 1920~30년대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지식 위주, 암기 위주의 교육에 대한 개혁 운동으로서 일어났다.¹⁷⁾ 1922년에 나온 헤르만 놀(Herman Nohl)의 논문 「학교에서의 철학」에서 “어린이들은 대부분의 어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고, 어린이의 철학적 경이를 함께 체험해 본 사람들은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가능성들을 알 것이다.”¹⁸⁾고 함으로써 지식 위주의 교육 이외의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놀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와 함께 철학수업을 할 때에는 전문 분과로 구분해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일반 수업에서 철학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탈피하여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수업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파시즘과 세계대전 등으로 이러한 개혁 운동은 중단되었고, 그 후 교육 개혁 운동 차원으로 복구되고 어린이의 사고 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어린이 철학개발 연구소’(IAPC)에서는 1969년에 개발된 사고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사고에 대한 사고를 통해 어린이들의 사고능력을 기르고자 하였다.¹⁹⁾ IAPC는 어린이를 위한 교재로 철학동화를 만들고 있고 지금도 어린이 철학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우리 철학교육의 모습도 같이 발맞추어 변하게 된다. 삶의 구조 변화는 철학적 사유의 전환을 초래하게 된다. 철학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의 철학이든지 그 시대, 그 사회의 근본 문제 해결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초식은 우리나라 지난 반세기 동안 철학교육을 다음과 같이 4기로 나누고 있다.

제1기는 전 교과생활의 철학화 시기로 1945~1954년까지이다.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여 지혜를 사랑하도록 하는 철학함의 모형을 탐구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일선학교의 교육 지침으로 삼은 것이 이 시기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교과에서 철

17) 임윤정, 「어린이 철학교육의 방법론을 교과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가」, 『철학논총』제55집, 충남대학교, 2009, 324쪽.

18) E. 마르텐스, 『어린이와 함께 철학하기』, 박승익 옮김, 지리소, 2000, 21-22쪽.

19) 임윤정, 앞의 논문, 324쪽.

학교교육은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6·25전쟁까지 겪어서 자유롭게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교육하기에는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제2기는 도덕 시간 및 철학교과 배정기로 1954~1963년까지이다. 이 시기에 도의교육은 초등학교의 새 교과로서 개설된 것이 아니고, “전 교과 및 기타 교육활동 전반에서 실시하되 각 학년 총 수업시간 수의 범위 안에서 연35시간 이상을 충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들이 제1차 교육과정으로 지칭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제3기는 도덕과 국민윤리의 철학 대행기로 1963~1982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제2차 교육과정과 제3차 교육과정의 시기이다. 특히 제3차 교육과정의 일반목표는 “한국 민주주의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반공 민주 신념에 투철하게 한다.”로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제4기는 철학계 교과의 자유 선택 시기로 1982~1995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4차 교육과정, 5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의 시기로 급변하는 시대와 발맞추어 비판적 사고능력과 창의적 구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진정으로 인간다운 인간을 교육하기 위한 철학교육을 꾸준히 요구하게 되었다.²⁰⁾

이처럼 지난 반 세기동안 아직 본격적인 어린이 철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해방 이후 전쟁, 반공 등 시대적 상황에 의해 비판적 사고와 창조적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한 철학교육을 할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어린이 철학교육의 필요성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이 중요하고, 올바른 선택은 올바른 사고에 의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철학교육은 절실히 필요하다. 철학함을 익히려면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는 물음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 답을 찾아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요즘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바쁘게 생활하고 있고 하루 종일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 움직인다. 어렸을 때부터 치열한 입시경쟁이라는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다. 그들은 왜 공부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이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질 시간이 없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20) 이초식, 『해방 50년의 한국 철학』, 철학과현실사, 1996, 116-126쪽 참조.

그리고 조금만 생각할 일이 생겨도 골치 아프다고 기피한다. 우리 교육의 고질적 문제점은 주입식 교육과 획일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주어진 지식만 수동적으로 암기하고 받아들일 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도출된 지식, 다수가 논의하여 합의한 지식을 가져본 경험이 거의 없다.²¹⁾ 어린이들은 놀라움에 가득 찬 궁금증으로 자연과 세계를 바라보고, 삶에 대한 근원을 알고자 하지만 현재의 교육은 그러한 어린이들의 지적 욕구를 채워 주는 데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무조건적 암기보다는 탐구 활동의 강화나 원리를 도출해 내는 과정의 제시 등 서술이나 논술의 형식을 통해 이런 단점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있다.²²⁾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무조건 암기하고 선생님들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주어진 자료를 수동적으로 적절히 운용하여 해결하는 수렴적 사고의 계발에만 치중하지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한 자기 계발을 만족스럽게 추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주체적인 판단과 안목을 바탕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발산적 사고가 필요한 학문 분야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다.²³⁾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새로운 도덕적 가치관 및 철학적 사고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고 있다.²⁴⁾ 그리고 미국의 IAPC는 도덕교육은 구체적으로 철학교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게 된다고 보았다.

첫째, 철학은 사고의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철학은 이론적·실제적 대안을 위한 꾸준한 탐구 작업을 중시한다.

셋째, 인간 존재의 복잡성 및 다양한 차원에 대한 자각을 철학은 미덕으로 여긴다.

넷째, 철학은 본질적으로 질문하는 작업이고, 질문한다는 것은 대화의 양식을 취한다.²⁵⁾

우리는 철학을 통해 도덕적 가치와 논리적 사고를 배울 수 있다. 특히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사고의 명료함과 논리적 엄정성을 토대로 적절하게

21) 문계연, 「어린이 철학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25쪽 참조.

22) 위의 논문, 30쪽.

23) 위의 논문, 31쪽.

24) 이인혜, 「어린이 철학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방법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13쪽.

25) M. 립텐 외,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 서울교육대학 철학연구동문회, 서광사, 1987, 133-134쪽 참조.

대처해 나아갈 수 있다.²⁶⁾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추구하고 가능한 선택의 폭을 넓혀 가는 방향으로 사고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철학교육을 받고 자란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동조하거나 주관적 감정에 기울어 판단하는 대신, 체계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²⁷⁾ 나이가 어릴수록 유연한 사고와 더불어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철학적 사고는 학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교육현실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철학교육은 필요하다. 모든 어린이들은 철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미래사회는 지식의 내용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스스로 사고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²⁸⁾ 하지만 현재의 실정은 사고력의 신장보다는 지식을 키우는데 더 급급하다. 사고력은 자연적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어린이 철학교육이 더 필요하다.

3. 어린이 철학교육의 목적과 내용

1) 어린이 철학교육의 목적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은 어린이로 하여금 스스로 깊이있게 사고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²⁹⁾ 어린이 철학교육은 교과과정에 포함되는 과목과 관련이 있는 것을 습득하도록 하고,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토론하는 기술 등 인지적 측면을 발달시키고,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당당하게 깨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등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의 발달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³⁰⁾ 이런 철학적 사고를 통하여 어린이들은 추론능력 향상, 창조성의 계발, 개인과 대인

26) 위의 책, 141쪽.

27) 문계연, 앞의 논문, 27쪽.

28) M. 립먼 외, 앞의 책, 1987, 33쪽.

29) 위의 책, 68쪽.

30) 박소연,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의 철학교육적 접근」,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7쪽.

관계의 성장, 윤리적 지성의 계발, 자신의 경험 중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의 계발 등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³¹⁾

어린이 철학교육 전문기관인 IAPC의 어린이 철학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 철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를 파악하고 앞으로 어린이 철학교육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IAPC에서 제시하는 어린이 철학교육의 목적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어린이 철학교육은 추론능력을 향상시킨다.³²⁾ 어린이는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비로소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된다. 이런 질문을 통해 다양한 원인을 추리하고 그 안에 포함된 규칙이나 법칙을 추리할 수 있어야 한다. 추론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반복하여 연습하거나 사고 규칙을 암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는 없고 추론을 단순히 논리적 추리의 원리나 규칙으로서만 가르쳐서도 안 된다. 어린이로 하여금 보다 나은 추리를 찾아내어 증거를 확인하고 잘못된 추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어린이 철학교육은 창조성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³³⁾ 어린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각 성장 단계마다 위기와 도전이 닥치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능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창의력과 창조성도 포함되어야 한다. 논리적 사고가 요구되는 상황이 있지만 때로는 논리적 오류가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조성을 신장시키기도 한다. 특히 여러 가지 목표를 두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최선일까를 검토하는데 있어서도 상상력과 창조성은 필요하다.

셋째, 어린이 철학교육은 개인과 대인관계를 성장시킨다.³⁴⁾ 어린이 철학교육은 무엇보다 대화를 통한 수업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타인과 토론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의 가치, 신념, 심리적 경향 등을 이해하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대인 통찰력을 바탕으로 어린이는 건전한 사회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사회성 발달의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한다.

넷째, 어린이 철학교육은 윤리적 지성을 계발한다.³⁵⁾ 어린이로 하여금 건전한 도

31) M. 립먼 외, 앞의 책, 68-79쪽 내용 참고.

32) 위의 책, 68-72쪽 참조.

33) 위의 책, 72쪽.

34) 위의 책, 73쪽.

35) 같은 곳.

덕적 판단에 도달하게 하려면 주변 상황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이나 관심 등을 계발시켜야 한다. 이런 윤리적 감수성과 관심은 그들이 하고자 의도한 것과 그 때의 상황 사이의 관계를 알도록 도와줌으로써 향상된다. 그리고 어린이에게 도덕적 결정을 강요하기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은 도덕적 판단의 본질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다.

다섯째, 어린이 철학교육은 어린이 자신의 경험 중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시켜 준다.³⁶⁾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의미보다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직접 발견한 의미가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 철학교육은 의미를 발견하고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하는 교육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체계적인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고 사고의 폭도 넓어진다.

여기서 제시된 5가지 목표는 현재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즉 탐구 학습, 토론학습, 발견학습 등 어린이 중심의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이라기보다는 교사 중심의 일방적이고 경직된 수업의 모습을 극복하고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결국 어린이 철학교육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으로 자라나게 하는 데 있다.

2) 어린이 철학교육의 내용

어린이들이 어른에 비해서 사고력이나 사고 깊이에서 부족하다는 면도 감안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린이에게 철학을 가르칠 때 어른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가르칠 수는 없다. 어린이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것을 선별하여 그것을 어린이 철학교육의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해 사고를 촉진하는 내용으로 다른 교과들과의 상호연관 속에서 비판적·포괄적·근원적인 사고와 추론이 요청되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³⁷⁾

현재 초등학교에 철학교재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어린이 철학교육은 읽기교과서나 수학, 음악, 미술, 과학, 사회, 도덕 교과서 가운데서 철학적 내용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접근해볼 수 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 각 교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어린이들과 친숙하고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³⁸⁾ 이

36) 위의 책, 74-79쪽 참조.

37) 문계연, 앞의 논문, 36쪽 참조.

처럼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재가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행 교과목의 교과서를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 교과목의 교과서를 적절히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내용면에서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동기를 북돋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의 내용은 어린이들의 관심거리나 흥미거리를 소재로 삼아 쉬운 내용과 평이한 문체로 그들의 생생한 삶의 현실에서 마주치는 문제이어야 한다.³⁹⁾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전래동화·창작동화, 그림책, 신문, 수수께끼, 만화 등을 비롯해서 속담이나 격언 등을 이용하여 철학적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들은 전래동화, 창작동화, 그림책을 통해 현실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갈등과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만화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이고 그림과 글을 통해 풍자의 묘미를 살릴 수 있고, 신문은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우리 사회상을 생생하게 반영하는 매체이다.⁴⁰⁾ 그리고 속담과 수수께끼는 짧지만 재미있고 철학적 문제의식으로 접근할 여지가 많다.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을 통해 철학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다양한 매체와 교재를 통해 어린이들은 철학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고, 철학적 사고 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

흥미유발 및 학습동기유발 방안으로는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 그리고 그 매체에 답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주제가 있다. 어린이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주제로는 친한 친구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공정의 문제(우애와 공정) 혹은 인터넷 게임 시간과 숙제에 할애하는 시간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욕구의 조절) 등에 대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⁴¹⁾ 여기서 주지해야 할 점은 어린이의 인지 수준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철학은 어린이 곁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38) 신원우, 「초등학교 철학교육의 한 모형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22쪽.

39) 박윤화, 「사고력 향상을 위한 어린이 철학교수법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141쪽.

40) 강은미, 「어린이 철학교육 방법의 한 모형」,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8, 31-32쪽.

41) 이인혜, 「어린이 철학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방법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47쪽.

Ⅲ. 동화 읽기를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의 이론적 근거

1. 동화와 어린이 철학교육

1) 동화읽기를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의 가능성

어린이들에게 철학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하더라도 강제로 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린이 철학교육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철학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쉽고 친숙하며, 철학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IAPC에서는 주로 이야기, 즉 동화나 소설의 형식을 가지고 각 학년에 맞는 적절한 주제를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제시하면서 논리적 사고훈련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철학동화’⁴²⁾의 양식을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이야기 형식의 교재들이 어린이 철학교육에 활용되면 어린이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고, 이것은 어린이들의 사고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통적 교육에서는 상상력과 창조성을 억압함으로써 논리적 엄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데 반해, 어린이를 위한 철학 프로그램의 접근방식에서는 논리적 사고가 창조 행위에 의해 촉진되며, 역으로 창조성은 논리 능력의 계발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⁴³⁾

동화는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활용하여 철학적 탐구와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⁴⁴⁾ 어린이에게 철학적 내용이 풍부한 동화를 읽어주거나 직접 읽게 하는 것은 그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어린이들은 이런 동화 읽기를 통하여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고 상상력이 자극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된다.⁴⁵⁾

42) 이 논문에서는 IAPC에서 만들어진 ‘철학동화’는 ‘철학소설’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다.

43) M. 립맥 외,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 서울교육대학 철학연구동문회 옮김, 서광사, 1987, 72쪽.

44) 진중부, 「유치원 철학 탐구 활동에서 동화 만들기의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3, 3쪽.

45) 박소연, 「초등학교 ‘읽기’교과서의 철학교육적 접근」,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1997, 10쪽.

철학적 소설을 이용하는 장점 중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이들의 모형 사회를 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소설을 읽은 어린이는 작중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소설은 어린이와 어른들 간의 토론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상호간에 지적인 토론의 모형을 제시할 수가 있다. 또한 소설들은 탐구의 모형, 협동의 모형, 주의 깊고 섬세한 인간 모형 등을 제시할 수가 있다. ...중략...모형을 쫓아서 해본다는 것은 그것을 모방하거나 본뜬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소설 속의 어린이들이 하는 방식대로 자기 자신에게 독특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인생을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희망과 용기, 믿음을 자극받으려는 것이다.⁴⁶⁾

아동문학의 대표격인 동화는 어린이의 삶이고 세계이다. 어린이들도 어른들처럼 많은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있다. 동화는 이런 어린이들의 삶과 모습을 반영하면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살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던져준다. 결국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은 어린이의 무한한 궁금증과 세상에 대한 경이감 그리고 끊임없는 물음과 철학적 질문을 토대로 한 동화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동화는 어린이에게 흥미를 주고 경험을 풍부하게 하며 그 속에서 갈등 상황을 자연스럽게 간접 경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철학적 내용이 풍부하게 담긴 동화는 보다 높은 수준의 사고를 요구하는 철학적 질문과 토론의 계기를 마련한다.⁴⁷⁾

2) 동화읽기를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의 필요성

동화는 “단순한 읽기자료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상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등과 같은 사고 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⁴⁸⁾교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화는 아이들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사건과 상상이 즐거움을 이루면서 전개된다. 동화는 크게 전래동화와 창작동화로 나눌 수 있고, 어린이 시기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다. 동화는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성을 풍부하게 길러주고, 동화 속 주인공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카타르시스 또는 대리만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장르이다.⁴⁹⁾ 또한 동화는 이야기가 자

46) M. 립맨 외, 『세 살 철학 여든까지』, 여훈근 외 옮김, 정음사, 1986, 298-300쪽 참조.

47) 박소연, 앞의 논문, 10쪽.

48) 황정현, 『동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박이정, 2007, 21쪽.

49) 강은미, 「어린이 철학교육 방법의 한 모형」,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8, 32쪽.

유롭게 전개되고 무엇보다도 재미가 있다. 어린이들의 인지수준에 맞는 동화를 선정하면 별 저항감 없이 어린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객관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동화를 읽으면서 어린이들이 체험하지 못한 여러 상황과 갈등을 만나게 해주며 동화 속에 나오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같이 느끼게 함으로써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과 사회성을 기르게 한다.⁵⁰⁾

이런 동화를 텍스트로 해서 주요 문제를 뽑아내고 그룹 토론을 한다면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며, 다양한 생각과 상황, 등장인물의 심정과 처지, 인과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추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⁵¹⁾

동화는 어디에서나 읽을 수 있고 어린이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중의 하나이다. 책읽기를 싫어하는 어린이들도 어렸을 때 동화책을 읽거나 누군가의 음성을 통해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은 동화를 통해 꿈을 꾸고 선악을 배우며, 감정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⁵²⁾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동화책을 즐겨 읽고 찾는다. 그렇지만 동화가 재미와 흥미만을 쫓아간다면 어린이들의 철학적 사고를 신장시킬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철학적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는 철학적 논쟁 거리를 가지고 있는 동화를 선정해야 한다.

동화는 철학적 논쟁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 동화에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등장한다. 무엇이 올바른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끊임없이 묻는다. 동화 속 주인공은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해답을 보여주려고 한다.⁵³⁾

어린이들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나 갈등 상황 속에서 제기될 수 있는 철학적인 문제를 동화를 통해 간접 경험하게 된다. 어린이들은 이런 경험과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그러한 논쟁거리를 동화 속에서 찾아내어 어린이들에게 제시하고, 어

50) 표은아, 「동화에서의 동시성적 표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7, 13쪽.

51) 강은미, 앞의 논문, 32쪽.

52) 문계연, 「어린이 철학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61쪽.

53) 같은 곳.

린이 철학교육을 위해서는 철학적 내용이 풍부하고 논쟁거리가 많은 동화를 선정해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철학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어릴 때부터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어린이들은 더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이면서 보편적인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동화는 어린이 철학교육을 위한 훌륭한 매체가 될 수 있다.

2. 비판적 읽기와 어린이 철학교육

1) 비판적 사고와 비판적 읽기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현대사회가 ‘고도의 지식과 정보가 폭주하고 다양한 가치관이 산재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주입식 교육만으로는 현대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기 힘들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어린이 교육은 논리적 사고력, 전체적 통합력, 창의적인 구성력, 도덕적 실천력, 꼼꼼이 따져 보고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⁵⁴⁾

물론,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독서지도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법론이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독서지도에 참여한 대부분의 어린이들조차도 책을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 책을 다 읽고 나서 느낌을 물어보면 “그냥 그래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처럼 아주 간단하고 짧게 표현을 한다. 이것은 책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생긴 현상이다. 책을 읽을 때에는 아래에 나와 있는 읽기 단계를 참조해서 읽으면 효과적이고,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된다.

①사실적 읽기(있는 그대로 읽기)- 글 속에 이야기되어 있는 것을 올바르게 깊이 있게 읽는 단계

②추리 상상하며 읽기- 글을 대상으로 문맥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와 의도를 상상하거나 추론하며 읽는 단계

54) 황정현,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교육연구의 이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42쪽.

③비판적으로 읽기- 자기의 체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며 읽는 단계

④글쓴이와 창조적 대화 단계- 글쓴이의 생각과 글읽는 이의 생각을 종합하여 새로운 생각을 창출하는 단계⁵⁵⁾

‘사실적 읽기’에서 독자는 책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글 속에 나타나 있는 사실이나 생각 등을 찾아내서 요약하며 읽는다. ‘추리 상상하며 읽기’에서는 글 속에 암시되거나 함축되어 있는 것을 독자 나름대로 추리하고 상상하며 읽으면서 글 전체 뜻의 맥락을 재구성하는 읽기이고, ‘사실적 읽기’보다는 더 많은 사고를 요구한다. 그리고 ‘비판적 읽기’에서는 자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마지막으로 ‘창조적 읽기’에서는 그러한 읽기의 전체과정을 겪으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자기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글읽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4단계의 읽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독자로 하여금 더 많은 사고와 읽기훈련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동안 동화를 읽는 과정에서 사실적 읽기, 추리 상상하며 읽기, 비판적 읽기, 창조적 읽기 중에서 비판적 읽기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동화는 작가가 현실을 바탕으로 상상해서 만든 이야기여서 추리 상상하며 읽기와 창조적 읽기 훈련은 적절히 병행할 수 있었지만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비판적 읽기는 소홀하게 취급되었고, 동화와 별로 연관이 없다고 여겼다.

비판하며 읽기란 글쓴이가 제시한 주제, 자료, 증거, 논증, 작품의 가치, 정확성, 효용성, 글쓴이의 의도와 글의 표현 방식 등을 일련의 준거에 의해 타당한 것으로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반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이해과정이다. 읽기 후 활동에서의 텍스트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독자가 반성적 회의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그 가치를 판단, 평가하는 능동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텍스트를 이해하는 전 과정에서 독자가 비판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⁵⁶⁾

이처럼 비판적 읽기는 수동적으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의 의미

55) 정기철, 『읽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 역락, 2000, 90쪽.

56) 이명숙, 「토의학습을 통한 비판적 읽기 지도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4쪽.

를 꼼꼼히 따져보면서 읽는 것이다. 즉 “글쓴이는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가?”, “글쓴이가 염두에 두고 있는 독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글쓴이의 주장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글쓴이의 주장은 적절하게 정당화되고 있는가?”, “글쓴이의 주장으로부터 어떤 함축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능동적으로 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판적 읽기는 “독자가 텍스트를 그대로 수용하는 읽기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지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따져보며 읽는 방법으로 텍스트의 표층적 의미를 파악하는 축어적 읽기 단계로부터 심층적 의미를 파악하는가를 잘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계에서 주목해야 하는 요소들을 꼼꼼하게 챙기며 텍스트를 분석, 비판, 종합하여야 한다.”⁵⁷⁾고 하였다. 즉 비판적 읽기는 텍스트에 대한 이론적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문화적 상황 등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찾아내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능동적 읽기이며 따라서 고도의 종합적 사고력을 필요로 한다.

비판적 읽기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판적 사고이다.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흠집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판적 사고란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보다 깊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해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고이다.

예를 들어 다지마 신지가 쓴 책 『바다로 간 가우디』⁵⁸⁾를 읽고 “바다에서 핵실험을 하면 바다에 있는 생물이나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고 하자. 그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주장은 분명한가?”, “그 사람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가?”, “그 근거는 믿을 만한가?”, “그것에 대해 반대 주장은 없는가?” 등의 질문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질문들은 어떤 사람의 주장에 비난을 하고 트집을 잡을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더 깊고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다.

이처럼 비판적 사고는 어린이들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종합적인 사

57) 위의 논문, 14쪽.

58) 다지마 신지, 『바다로 간 가우디』, 김미월 옮김, 계수나무, 2004, 이 책의 주인공 거북이 가우디는 수족관에서 살다가 바다가 너무 그리워서 탈출을 한다. 막상 바다로 가 본 현실은 비참했다. 바다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너무 오염되어서 모든 바다 생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 사람들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바다 속에서 핵실험을 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가우디는 그 실험을 막다가 죽는다는 내용의 환경동화이다.

고력을 요구하는 고도의 정신적 활동이며, 인간의 총체적 능력을 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는 단순한 지식을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나오게 된 과정, 여러 가지 상황과의 관계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필요하다.

2) 비판적 읽기와 동화

비판적 읽기는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어린이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지도가 요구된다. 먼저 연령에 맞는 독서와 토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문학,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독해력’을 키우고, 자기의 체험과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며 읽는 과정을 통해 ‘사고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까지 암기, 주입식 교육을 통한 지식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사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고력 중심 교육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⁵⁹⁾

동화를 가지고 비판적 읽기를 한 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들이 자주 읽는 동화 중에 형제간의 말다툼을 내용으로 하는 동화가 많다. 형과 동생이 심한 말다툼을 벌이는데, 엄마는 형에게 참으라고 하면서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형은 엄마 말씀에 쉽게 수긍하지 않는다.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은 자기 모순적인 표현이라서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작은 아이는 엄마 말씀에 쉽게 수긍할 수 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은 이해심이 많아야 하고, 나이 적은 동생에게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동화내용이 어린이들에게 토론의 내용으로 제시되면, 어린이들은 엄마 말씀 중에서 어떤 점에서 맞고 틀리는지를 또 형 생각과 동생 생각 중 어느 것이 맞는지를 세심하게 따지게 된다. 이것은 어떤 주장의 맞고 틀림을 따지는 일로서 논리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토론과정에서 어떤 어린이는 비록 엄마 말씀이 자기 반박적인 표현일지라도 자기감정을 참으면서 인격 수양을 하라는 깊은 뜻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남을 이기는 것보다 힘든 일이므로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일상적인 언어나 행동 속에 숨어 있는 깊은 뜻을 찾아내는 것으로 바로 인식의 문제인 것이다. 아울러 토론을 지켜보는 학생들은 자기가 형이나 동생과 다툼 일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앞으로 계속 말다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또 말다툼이 아닌 다른 일들에서도 동생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59) 박정희, 「초등 논술교육을 위한 방법론」, 『철학논총』57집, 새한철학회, 2009, 193쪽.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자기 삶을 어떻게 전개시킬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함께 생활할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존재의 문제이자 윤리의 문제인 것이다.⁶⁰⁾

이런 문제로 토론에 폭 빠졌던 어린이라면, 분명 이 토론 수업을 통해 쟁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을 것이다. 아울러 말다툼이나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 그 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식을 얻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또 다른 사람과 어떻게 공존하면서 생활할지에 대해 새로운 사고를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토론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대학생들이 논리학과 인식론, 존재론, 윤리학 등의 교과를 통해 철학을 학습하는 것과 달리, 동화 읽기와 토론하기를 통해 철학을 학습하면서 철학교육의 목표를 성취해내는 것이다.⁶¹⁾

다음 글은 ‘김알렉스라는 아이’⁶²⁾의 일부이다.

알렉스가 나를 인사시키자, 부모님은 좋은 친구가 되라면서 자장면을 가득 담아 주었습니다. 군만두도 한 접시 주었습니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정신없이 떡다가 얼핏 알렉스를 보았습니다. 알렉스의 그릇은 이미 말끔히 비어 있었습니다.

“알렉스 너, 자장면을 무척 좋아하나 보다?”

내가 처음으로 알렉스에게 먼저 건넨 말입니다.

“히히, 처음엔 싫어했어.”

“왜?”

“히히, 자장면이 내 얼굴처럼 까매서.”

“네 얼굴이 까맣다고 애들이 놀리지 않니?”

“친구들은 안 놀리고, 친구 아닌 애들은 놀려.”

알렉스의 말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나는 알렉스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하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이 동화는 진정한 친구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얼굴색이 다른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 그리고 나와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조건이 될 수 있는지, 알렉스와 나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철학적 대화를 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어린이의 사고력은 더 깊어지는 것이다.

60) 조관성·정은혜 공저, 『동화를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 교육과학사, 2008, 19쪽.

61) 위의 책, 19쪽.

62) 노경실, 『동화책을 먹은 바둑이』, 사계절, 1997.

3. 어린이 철학교육을 위한 대화와 토론수업

1) 어린이 철학교육과 대화법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철학교육을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철학함’으로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효과적인 철학교육 방법은 어린이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다. 철학교육이 본질적으로 질문하는 과정이고 질문한다는 것은 대화와 토론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⁶³⁾ 동화 한편을 읽고 동화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한다면 사고 능력과 창의성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

어린이들 개개인의 사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은 대화이다.⁶⁴⁾ 어린이들이 열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껏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와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언어 능력을 키우는 데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듣기를 제외했을 때 말하기, 읽기, 쓰기 중 가장 이른 시기부터 훈련을 통해 체계적으로 습득될 수 있는 능력이 말하기이다.⁶⁵⁾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할 내용을 정리해서 자기 나름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을 잘 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거나 유창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특히 말하는 방법 중 혼자만 하는 독백보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 나누는 대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의 전형과 불멸의 철학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대화는 교육의 주요 수단이 되며 가장 중요한 철학교육의 방법이 되고 있다. 모든 인간은 본래 앎을 욕구한다.⁶⁶⁾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물음을 제기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물음은 답보다 더 중요하고 어떤 답은 새로운 물음을 남기기도 한다. 따라서 물음은 무지를 벗어나 참된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 특히 물음 중에서도 철학적 물음이 중요하다

63) 이인혜, 앞의 논문, 40쪽.

64) 박민규, 앞의 논문, 35쪽.

65) 박정희, 앞의 논문, 194쪽.

66)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1권(A) 980a, 김진성 역주, 이제이북스, 2007, 29쪽.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은 어린이들에게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철학이 대화적 탐구 방법과 동일시된 것은 기원전 5세기경부터이고 소크라테스에 의해 발전하게 된다. 흔히 문답법으로 불려지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논박술과 산파술이다. 논박술은 질문을 계속 제기하면서 대화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가 지니고 있는 지식이 잘못됨을, 즉 자기 스스로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다. 산파술은 상대방이 이미 갖고 있는 지식에서 출발하여 미지의 세계로 이르게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게 하는 방법이다.⁶⁷⁾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능동성을 강조한다.

둘째, 결과보다는 결과를 찾기까지의 사고과정을 중시함으로써 진정한 철학함을 구현할 수 있다.

셋째, 외부 지식을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유하고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만을 수용함으로써 비판적인 정신을 함양하게 된다.

넷째, 스스로 문제를 계획, 탐구,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탐구능력 또는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준다.

다섯째, 교사는 안내자 역할을 하며 어린이들의 탐구를 돕는 협조적인 위치에 있다. 더 나아가 공동 탐구의 구성원으로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다.⁶⁸⁾

이처럼 대화법은 철학함으로써 철학교육이 나아가는 바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에게 교육이란 모르는 사람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산파가 어린이에게 자신의 무지를 일깨워주고 그렇게 무지를 깨달은 어린이로 하여금 올바른 지식을 탐구하려는 욕구와 흥미를 불러일으켜준다. 그런 동기유발로 학습자가 스스로 사고를 하면서 올바른 지식을 얻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이다. 이렇듯 학습자 스스로에 의해 동기유발이 된 경우에는 내재적 동기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

67) 박해용, 『청소년을 위한 서양철학사』, 두리미디어, 2002, 34-39쪽 참조.

68) 조미옥, 「초등학교에서 철학교육의 가능성 탐색」, 창원대학교 대학원, 2001, 28쪽.

문에 좀 더 바람직한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다.⁶⁹⁾ 이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 발견’의 과정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통해서 실령 지식이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새로운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학습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⁷⁰⁾ 그의 대화법 중 특이한 점은 대화의 마지막에 결론이나 답변을 내리지 않고 대화가 끝난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는 정해져 있는 답을 찾아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친숙한 내용을 토대로 수많은 답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열린 질문’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⁷¹⁾ 교사의 다양한 질문에 학생들의 답이 이어지고, 그 답에 적절한 또 다른 질문, 이와 같은 질문과 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 의견 충돌이나 싸움이 생기게 된다. 이 때 힘에 의존해서 해결하려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그리스인들이 보여주었듯이 ‘대화’이며,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어린이들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사고 능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끝없는 질문을 던질 때 이를 귀찮게 여겨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교사는 산파의 역할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능숙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잘 훈련된 대화기법은 활발한 토론수업의 기초가 될 것이다.

2) 어린이 철학교육과 토론수업

토론을 하려면 잘 훈련된 대화기법을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말하는 능력과 사고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이처럼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상대방의 논거가 타당하지 않음을 말함과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하는 말하기의 한 형태이다.⁷²⁾ 즉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이 옳다면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견이

69) 이인혜, 「어린이 철학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방법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59쪽.

70) 김희용, 「어린이 철학교육의 방법론 및 도덕교육에의 활용」, 『초등교육연구』15권 2호, 한국초등교육학회 2002, 92쪽.

71) 김희용, 「소크라테스식 교수법에 관한 논의」, 『교육학연구』, 제37권 제1호, 한국교육학회, 1999, 15쪽.

72) 박정희, 앞의 논문, 196쪽.

옳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다.

단순한 의미의 토론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불러일으키고, 여러 견해가 합쳐지고 제각각의 의견이 서로가 일치하는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추론하는 능력을 증진시켜 주지는 못한다. 철학적으로 훈련되고 다듬어진 토론에 의해서만 추론 능력은 제고된다.⁷³⁾

앞에서 언급했지만 어린이 철학교육의 목적 중 하나는 추론 능력의 향상이다. 이런 추론 능력은 반복하여 연습하거나 사고 규칙을 암기한다고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철학적 질문과 토론에 의해 가능하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토론 후에 반성하는 과정에서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⁷⁴⁾ 초등학생들이 일찍부터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밝히고 타인의 생각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 철학교육의 주안점도 하나의 특수한 결론보다는 토론의 과정에 두어야 한다.⁷⁵⁾

일반적으로 토론수업은 우선 상황을 제시하고 토론문제를 설정하며, 둘째 토론계획을 수립하고, 셋째 토론활동을 전개하며, 넷째 토론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토론활동을 평가하는 5단계로 이루어진다.⁷⁶⁾ 철학교육을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확장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때 효과적인 수업 방법은 어린이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이다. 토론을 진행할 때 교사는 어린이의 철학적 사고를 유발시키는 산파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적절한 질문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립맨은 교실에서 아동과 철학적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교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교사는 아동을 잘 이해하고 철학적 문제에 민감성을 유지하여 일상의 행동에서 철학적 탐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야 한다. 둘째, 교사 자신이 특정한 가치관을 주입하지 않도록 하여서 아동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다. 셋째, 아동의 의견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아동의 의견

73) M. 립맨 외,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 서광사, 1987, 100쪽.

74) 위의 책, 73쪽.

75) 위의 책, 97쪽.

76) 박소연, 앞의 논문, 47쪽.

을 존중해야 한다. 넷째, 아동이 교사가 자신의 생각을 공정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신뢰감을 갖도록 한다.⁷⁷⁾

토론에서 교사는 토론 참여자이고, 어린이를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이 상호 존중하도록 배려하고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교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3) 어린이 철학교육과 철학적 탐구공동체

어린이 철학교육에서 앞에서 언급한 대화와 토론을 이용한 효과적인 수업방법은 ‘철학적 탐구공동체’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철학적 탐구공동체는 서로 생각하도록 북돋우고 서로의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학습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으로 탐구와 공동체라는 두 개의 기본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철학적 탐구공동체는 어린이가 지식을 학습하는 것보다 탐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더 중시한다.

철학적 탐구공동체는 근본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⁷⁸⁾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함으로써 타인을 배려하고 생활 속에서 철학하는 자세를 스스로 터득할 수 있다. 어린이 철학교육에서의 철학적 탐구공동체는 학급 단위나 소집단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소집단으로 구성되는 집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개인적 참여와 의사소통 등의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철학적 탐구공동체는 다른 사람과의 협동적인 활동이 조장되며 그것을 통해 구성원들 간에 깊은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⁷⁹⁾

어린이들은 철학적 탐구공동체 속에서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사고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한 어린이일수록 사고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많아지고, 대화를 논리적으로 이끄는 방법을 알고 내면화한 어린이일수록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⁸⁰⁾ 따라서 사고를 향상시키는 탐구는 공동체에서의 대화나 토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77) 위의 논문, 58쪽에서 재인용.

78) 이인혜, 앞의 논문, 67쪽.

79) 위의 논문, 68쪽.

80) 이선영, 「철학적 탐구 공동체와 도덕교육」,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16쪽.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지적으로 긴장하기 마련이다. 대화에 있어서 영성한 추론 또는 우둔한 문답은 설 자리가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깊게 귀 기울여야 하고, 자신의 말을 가다듬어 표현하게 된다. 또 자신과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꼼꼼이 되뇌어서 보다 더 잘 말할 수 없었는가를 숙고한다. 이같이 대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가능성을 탐구하고 대안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각을 인식하는 것이며, 탐구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이다.⁸¹⁾

립맨과 그의 동료들이 철학적 탐구공동체를 어린이 철학교육의 기반으로 삼으면서부터 철학교육의 방법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다고 한다. 철학적 탐구공동체는 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간의 대화 공동체를 통해 수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⁸²⁾ 학생들은 공동의 탐구를 통하여 협력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익히고 또 배려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 이런 철학적 탐구공동체 활동의 기본 원리는 어린이들이 동화를 읽고 스스로 흥미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철학적 문제들을 가지고 철학적 탐구공동체를 형성하여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과 능력이 중요하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서처럼 교사는 산파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와 설명이 아니라 어린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철학적 탐구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주로 대화와 토론의 방법을 활용한다. 철학적 탐구공동체에서 교수-학습은 교사가 중심인 일방적인 강의에서 벗어나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사전에 준비된 지식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로서 대안을 모색하는 민주주의적 토론을 기본으로 한다.⁸³⁾

김회용에 따르면, 이러한 철학적 탐구공동체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음 5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단계는 동화로 된 교재의 제공이다. 동화형식으로 학생들과 그 사회의 문화를 매개해 주는 구실을 한다. 둘째 단계가 질문지 구성하기이다. 동화를 읽은 후 학생들은 자신이 궁금증과 연결된 질문을 만들어 발표하는데 이 질문들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알 수 있게 된다. 셋째 단계가 공동체 결속하기이다. 제기된 문제 중에서 학생들의 관심사를 택하여 토론을 하게 된다. 넷째

81) M. 립맨 외,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 서울교육대학 철학연구동문회 편역, 서광사, 1987, 18쪽.

82) 이선영, 앞의 논문, 33쪽.

83) 위의 논문, 37쪽.

단계가 교사용 교재에 있는 연습문제 적용과 토론 계획 활용이다. 토론이 진전된 후 철학적 물음들을 인용해 와서 다시 탐구를 전개해 간다. 다섯째 단계가 심화된 반응으로 고무시키기이다.⁸⁴⁾

어린이는 천성적으로 또래 집단을 좋아하고 남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래 집단과 어울리게 하는 공동체적 활동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어린이는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또 집단을 형성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를 위한 교육은 개인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흥미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즉, 철학적 탐구공동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물론 요즘 일선학교에서는 읽기와 대화, 토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건전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84) 김희용, 「어린이 철학교육의 방법론 및 도덕교육에의 활용」, 『초등교육연구』15권 2호, 한국초등교육학회, 2002, 95쪽.

IV. 동화 읽기를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의 실제

-『행복한 청소부』를 중심으로-

1. 철학수업을 위한 학습 계획안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학습계획안이다. 수업이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기의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내부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조정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수업은 제주시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년은 3-6학년으로 구성된 방과후 학교 독서논술을 신청한 어린이들이다. 1차시당 수업 시간은 60분이고, 3차시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1차시는 교수-학습 계획안 1단계에 해당하는데, 행복에 대한 의미지도를 그리면서 행복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후에 『행복한 청소부』를 읽고 토론할 문제를 설정하였다. 2차시는 교수-학습 계획안 2단계에 해당하며, 토론절차를 정한 후 설정된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3차시는 교수-학습 계획안 3~5단계에 해당하며, 토론 활동을 전개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고 평가한 후 다른 문제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철학교수-학습 계획안 예시>

학습목표	1. 철학적 탐구 공동체를 구성하여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다. 2. 철학함으로써의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상학년	3학년 이상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비고
1단계	문제 설정	<모둠 구성하기> -오늘의 학습 주제 및 목표를 공유하고 제시한다. -원활한 토론을 위한 모둠을 구성한다. <토론할 문제 설정하기>	*어린이들이 직접 질문을 만들어 발표한다.

2단계	토론계획 수립	<p>*행복에 대한 의미지도 그리기</p> <p>*동화책 읽고 토론할 문제 설정하기</p> <p>-흥미로운 점, 궁금한 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발표하기</p> <p><토론계획 수립></p> <p>*토론절차 정하기</p> <p>-어린이들이 발표한 내용 주제별로 묶기</p> <p>-이야기 할 순서 정하기</p> <p>*다양한 토론 주제들</p> <p>-행복한 청소부 아저씨가 청소를 하면서 강연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p> <p>-행복이라는 말과 청소부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나?</p> <p>-‘행복한 청소부’가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면서 청소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청소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무엇이고, 그런 고정관념은 타당한가?</p>	<p>*어린이들의 관심을 유도한다.</p>
3단계	토론활동 전개	<p><토론활동 전개></p> <p>*순서대로 문제 토론하기</p> <p>-같은 주장을 하는 어린이끼리 집단 구성</p> <p>-서로의 의견 교환(자신의 입장 이야기하기→다른 주장을 하는 집단의 이야기 듣기)</p> <p>*토론 주제: 행복한 청소부 아저씨는 청소부로 남는 게 행복할까 아니면 대학교수로 가는 게 행복할까?</p>	<p>*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조정이 가능하다.</p>
4단계	결과 정리 및 평가	<p><토론의 결과 정리 및 평가></p> <p>*모든 문제의 토론 과정 정리</p> <p>-토론의 논리적 귀결이 타당한지 검토</p> <p>-대안 고려 및 열린 사고 유도</p>	<p>*수업내용을 전제와 귀결의 타당성 측면에서 검토를 한다.</p>
5단계	탐구 결과의 일반화	<p><토론결과의 적용></p> <p>*다른 문제나 상황에 적용</p>	<p>*획득한 개념들을 다른 문제상황이나 수업 대상에 활용한다.</p>

2. 행복에 대한 의미지도 그리기

1) 행복의 의미

사람이 어느 정도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왜’라는 질문과 마주 선다. 왜 사는가, 왜 공부하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 왜 죽어야 하는가, 마음이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등 처음에 궁금증으로 시작한 질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힘겨운 싸움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의식은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사물을 인식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 “엄마, 저건 뭐야?”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 묻고 또 묻는다. 유아기부터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 정답을 찾아 헤매게 된다. 즉 삶이라는 긴 여행을 하는 동안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방황하면서 여러 가지 길을 찾는 것이고, 그 길 가운데에는 행복한 삶에 대한 동경이 있다.

국어사전에서는 ‘행복’을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풀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幸’이란 오래 사는 것, ‘福’은 경사스러운 것, 행복한 것이란 뜻이다. 행복이란 뜻의 영어 happiness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어 *eudaimonia*를 번역한 말이다. 이 그리스어는 ‘선한 신’이 지켜 주는 마음의 평화 또는 평안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많이 나온다. 그곳에서 *eudaimonia*란 인간 행위의 최종목적이자 최고선으로 언급되면서 내용적으로는 인간의 본질적 기능인 이성적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⁸⁵⁾ 이 *eudaimonia*가 훗날 영어로 ‘happiness’로 번역되었고 그 말이 다시 또 ‘행복’으로 번역된 것이다.

이처럼 행복론은 윤리의 문제이자 종교의 문제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철학의 문제이다. 본질을 추구하고자 했던 철학자 자신들도 ‘상황 내 존재’ 즉 그들이 살았던 시대 내지 사회 등의 제약을 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행복의 내용은 그 입장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성적 영혼의 능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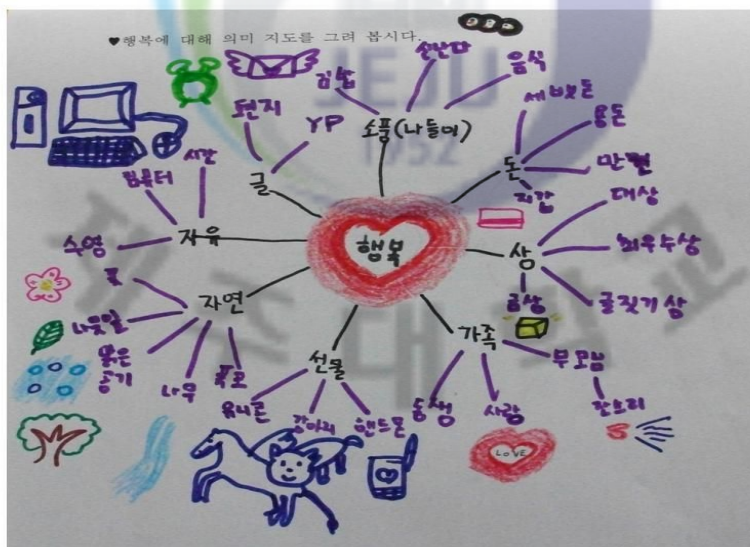
85) 이정호 엮음, 『행복에 이르는 지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8쪽 참조.

완전하게 실현된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였고, 에피쿠로스는 유물론적 쾌락주의에 입각하여 마음에서의 고통의 부재, 즉 평정을 최고의 행복으로 주장하였으며,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칙으로부터 공중적(公衆的) 쾌락을 인간 행복의 원리로 제시했다.⁸⁶⁾

2) 행복의 의미지도

행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물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이 서로 다르다. 일반 사람들은 보통 쾌락이라든지 부라든지 명예와 같은 것을 행복이라고 하지만 그들 또한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병을 앓고 있으면 건강을, 가난하면 부를, 또 스스로가 무지하다면 앎을 얻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한다. 어른들도 행복한 삶을 추구하듯이 어린이들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행복하냐?”는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어린이들이 의외로 많다. 행복이 무엇인지, 자신의 지금 삶이 행복한지조차 모르고 앞만 보고 가는 어린이들에게 행복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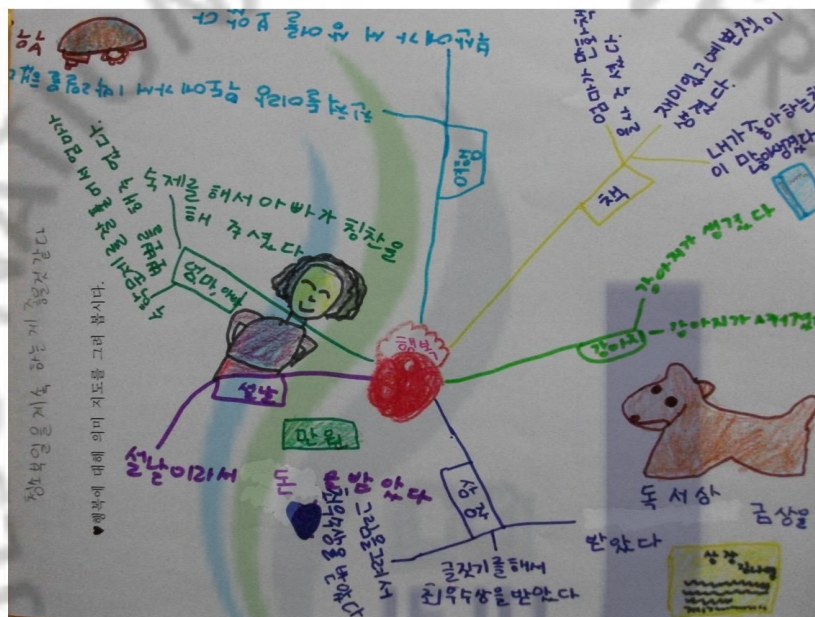
다음은 어린이들이 그린 행복과 관련된 의미지도들이다.



제주 D초등학교 , 3학년, ○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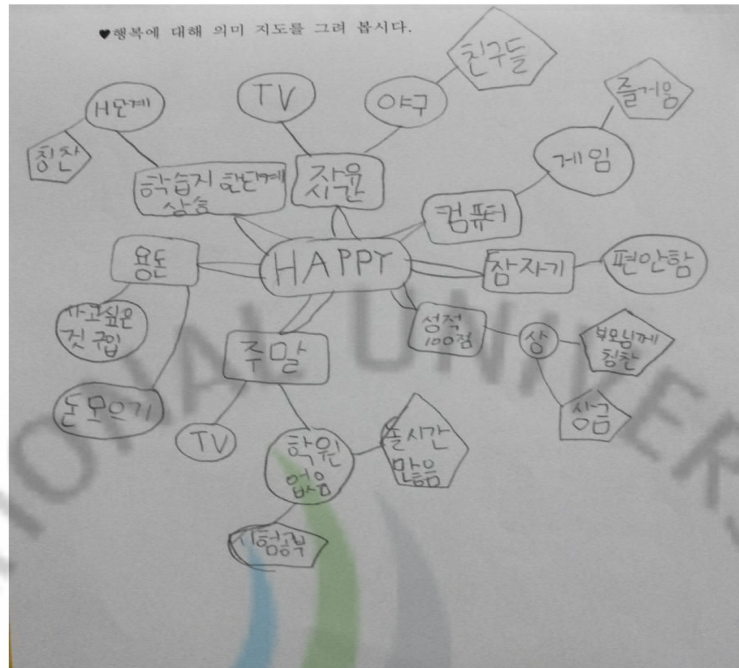
86) 위의 책, 5쪽.

주영이는 토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발표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어린이이다. 상 받을 때와 자유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낼 때, 선물을 받을 때 행복하다고 하였다. 주영이는 주로 물질적인 만족에서 행복의 가치를 찾고 있었다. 많은 어린이들이 주영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 제주 D초등학교, 3학년, ○나영-

나영이는 부모님께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을 때와 가족과 같이 지낼 때 행복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영이가 키우고 싶었던 강아지가 생겼을 때 무척 행복했다고 했고, 책 읽을 때 행복하다고 했다. 나영이는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 양쪽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고 있었다.



- 제주 D초등학교, 4학년, ○민혁 -

요즘 어린이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만 되어도 학교에서 보는 시험으로 인해 성적이 그들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다. 민혁이 역시 성적 100점을 받았을 때와 상을 받았을 때 행복하다고 했다. 그리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학원을 안 가는 주말과 컴퓨터를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어린이들이 많았다. 그리고 게임을 할 때 행복하다고 반응을 보인 것은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의 수가 더 많았다.

아래 글은 의미지도로 행복에 대해 생각을 충분히 한 후 ‘행복과 나’라는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이 글을 읽고 어린이들의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나는 시험을 봤을 때 올백을 맞거나 자격증 시험 같은 것에 합격할 때가 행복하다. 하지만 시험 그 자체가 나에게겐 불행이다. 엄마가 공부하라, 공부하라 잔소리가 시험 공부할 때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내 인생에는 행복이 많다. 내 생일이나 반 대항

경기 때 이기는 것 등이다. 불행한 일을 행복한 일로 바꾸려면 엄마가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서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다. 그러면 엄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되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 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면 되기 때문이다. 행복해지기는 쉽다. 그러나 사람들은 행복해지기가 어려운 줄 안다. 그 이유는 노력을 안 하기 때문이다.

(제주 D초등학교, 6학년, O준혁)

준혁이는 우등생이고 모범생으로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어린이이다. 그러나 준혁이 역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할 때 행복을 느낀다.

3. 대화법과 토론수업의 실제

1) 『행복한 청소부』내용 파악

모니카 페트의 『행복한 청소부』⁸⁷⁾에 나오는 아저씨는 하층민들의 직업으로 인식되는 청소부다. 파란색 옷을 입은 청소부 아저씨는 날마다 거리의 표지판을 닦으면서도 각 거리에 붙여진 이름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거리에 새겨진 이름들, 즉 작가와 작곡가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한다. 하루 일을 마치고 도서관을 오가면서 아저씨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다. 청소부 아저씨가 일하면서 유명한 음악가들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마음에 드는 시 한 구절을 읊조릴 때, 길가던 사람들은 거리 표지판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시와 음악을 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된다. 아저씨는 여러 대학에서 강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나는 하루 종일 표지판을 닦는 청소부입니다. 강연을 하는 건 오로지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나는 교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라는 말로 거절한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소중함을 발견한 행복한 청소부에게 대학 교수 자리는 그다지 의미있는 자리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87) 모니카 페트, 『행복한 청소부』, 김경연 옮김, 풀빛, 2000.

2) 대화법의 실제

『행복한 청소부』를 읽고 책 내용과 행복에 대해서 대화한 내용을 여기에 수록하고자 한다. 사전에 어린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의점을 미리 공지하였다. 어린이들이 의견을 말할 때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대화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하는 어린이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듣는 어린이는 중간에 말을 자르거나 무성의하게 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완결된 문장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게 한다.

선생님: 오늘 읽은 책 제목이 무엇이죠?

○진수: 네, 『행복한 청소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목이 조금 이상해요.

선생님: 어디가 이상하죠?

○진수: 청소부가 행복하다는 것이 이상해요. 청소부는 행복하지 않아요.

선생님: 아니 왜 청소부는 행복하지 않죠?

○민혁: 청소부는 더럽고 힘들고 돈도 조금밖에 못 벌어요.

○경희: 맞아요. 청소부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불쌍하게 보여요.

선생님: 그럼 청소부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고 힘든 일을 하기 때문이네요. 그럼 돈이 많은 부자들은 모두 행복할까요?

○진수: 아니요.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민혁: 그래도 부자들은 청소부보다는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책의 주인공인 청소부는 행복한가요?

○경희: 아주 행복하고, 자신의 일을 사랑해요.

○민혁: 즐겁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여러분도 이렇게 행복한가요?

○민혁: 글썄요, 하지만 주말에는 행복해요.

선생님: 그러면 주말이 아닌 때는 행복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민혁: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학원에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컴퓨터 게임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학원에 가는 때와 컴퓨터 게임을 못할 때는 행복하지 않는 거로군요?

○경희: 가족들이랑 같이 지낼 때 행복해요.

○주영: 저는 상을 받거나 시험을 잘 보면 행복해요.

선생님: 이 책에 나오는 아저씨는 어떨 때 행복하다고 했나요?

○민혁: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면 행복해요.

○진수: 네, 저도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 행복해요.

○민정: 저는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해요.

선생님: 여러분이 행복할 때는 마음이 어떤가요?

- 경희 : 따뜻해져요.
- 주영: 얼굴에 웃음꽃이 피요.
- 진수: 사는 것이 즐거워져요.
- 민혁: 살맛이 나요.

선생님: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경희: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 주영: 항상 자신에게 행복하다고 말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그럼 정말 행복해져요. 정말 신기하죠.
- 진수: 건강해야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사라봉에 운동가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과 어린이 사이의 대화는 계속 이어진다. 어린이 서로가 대화를 할 수도 있다. 가끔 자신이 할 이야기만 하고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어린이가 있으면 교사가 주의를 준다.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말을 잘 듣는 자세가 대화에서 더 필요하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서로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된다. 물론 대화의 마지막에 어떤 결론이나 답변을 내리지 않고 대화를 마무리하게 된다.

3) 토론수업의 실제

『행복한 청소부』를 읽고 교실보다 더 작은 공동체인 방과후 학교 독서논술부 어린이 15명을 대상으로 토론하는 수업절차를 구성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토론절차에 따라 토론수업을 진행하였고,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토론분위기를 조성하고 규칙을 먼저 설명하였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자세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로 어린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1) 토론문제 설정

『행복한 청소부』를 읽고 토론할 문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어린이들과 동화책을 돌아가며 소리내어 읽는다. 동화를 읽은 후에 어린이들이 책을 읽으며 생각했던 것 중에서 재미있었던 점, 궁금한 점, 이야기하고 싶은 점들을 자유롭게 말한다. 청소

부 아저씨는 자신의 직업인 청소부 일을 싫어하지 않고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장면과 청소부 일을 하면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대학교수를 거절하고 청소부로 남는 장면이 흥미롭다. 어린이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로는 “행복한 청소부라는 제목을 들으니 어떤 느낌이 드나?”, “청소부 아저씨는 자신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청소를 하면서 강연을 하는 것은 괜찮은가?”, “우리가 청소부에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청소부 아저씨는 청소부로 남는 게 행복할까 아니면 대학교수로 가는 게 행복할까?” 등이 있다.

(2) 토론계획 수립

토론 문제가 설정되면 토론 계획을 수립한다. 동화책에서 어린이들이 토론하고 싶다고 발표한 내용을 어린이들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정리하고 이야기할 순서를 정한다. 이 단계는 철학적 탐구공동체 모형을 적용하면 생각거리 찾기 단계로 교재를 읽은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의문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토론 활동의 기초능력을 가지게 된다. 학생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선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하고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이 고취된다. 행복한 청소부 아저씨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 살펴보고 나서 청소부 아저씨가 청소부로 남는 게 행복할지 대학교수로 가는 게 행복할지 순으로 토론 절차를 정할 수 있다.

(3) 토론활동 전개

토론 절차를 정한 후 토론 활동을 전개한다. 토론거리는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를 스스로 선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토론을 하는 동안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들으면서 서로의 생각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발전된 사고가 가능하게 된다. 학생들이 책을 읽으면서 가졌던 의문이나 생각들을 정리하고 앞에서 학생들이 합의하여 정한 순서대로 토론문제를 가지고 토론한다. 학생들이 토론을 할 때에는 같은 주장을 하는 학생들끼리 집단을 구성하여 자기 팀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말한다. 그리고 다른 주장을 하는 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나와 다른 생각이 있음을 인정한다. 주장에

대한 근거를 자세하게 제시를 해 주어야 설득력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청소부 아저씨가 생각하는 행복과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을 같이 비교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을 한다. 많은 어린이들이 행복을 돈과 연관을 시켜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한다. 그럼 청소부 아저씨는 청소부와 대학교수 중 어느 직업을 가졌을 때 진정 행복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이유를 찾는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과 의견을 듣고 자기 팀의 주장에는 모순이 없는지 비교하면서 토론을 진행한다.

(4) 토론결과 정리 및 평가

토론이 끝나면 토론의 결과를 정리하고 검토하여 평가한다. 어린이들과 같이 토론했던 모든 문제의 토론과정을 정리한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 귀결이 타당한지 검토해 본다. 그리고 토론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토론의 결과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가진다. 청소부 아저씨가 청소부로 남든지, 아니면 대학교수로 가든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자신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본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처럼 토론의 마지막에 결론이나 답변을 내리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어린이들은 청소부 아저씨가 청소부로 남아 있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고 대답을 하였다. 역시 돈이나 물질적인 것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쪽에 더 많은 행복 점수를 준 것이다.

어린이들이 쓴 글을 통해 각각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 청소부 아저씨가 청소부로 남아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행복하다는 입장이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다. 난 현재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 이야기 속 청소부 아저씨는 대학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고 청소부 생활을 계속하였다. 청소부 아저씨도 나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

나는 청소부 아저씨가 대학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뒤로 하고, 청소부 일을 계속한 것이 아저씨에게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저씨 역시 나와 같은 생각으로 표지판 청소

부의 길을 선택한 것 같다. 따라서 나는 아저씨가 대학교수보다 청소부로 남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제주 D초등학교, 6학년, O지윤)

지윤이는 청소부 아저씨가 대학교수로 가는 것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청소부로 남는 게 더 행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돈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윤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어린이가 많았다.

이번에는 청소부보다는 대학교수로 되는 게 더 행복하다는 입장이다.

나는 지금 그냥 보통이다.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다. 청소부 아저씨가 생각하는 행복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다른 것 같다. 청소부 아저씨는 청소부라는 직업을 사랑하고 아저씨가 맡은 거리와 표지판을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돈이 많거나 학교를 다니는 게 즐겁고 친구가 많은 때 행복하다. 청소부 아저씨는 과연 청소부로 남는 게 행복할까 아니면 대학교수로 가는 게 더 행복할까? 나는 대학교수로 가는 게 행복할 거라 생각한다. 내 꿈이 대학교수라서인지 몰라도 대학교수가 청소부보다 행복할 것 같다. 대학교수는 무엇보다도 돈을 많이 벌고 방학 기간에 쉬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청소부는 돈을 조금밖에 못 벌고 매일 매일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아저씨는 실력이 되기 때문에 청소부를 하면 그 실력이 가까울 것 같다. 대학 교수가 되어서 실력을 뽐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제주 D초등학교, 6학년, O호정)

호정이는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한 삶을 행복의 우선 조건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아저씨가 청소부보다는 대학교수로 가는 게 더 행복하다고 했다. 그리고 호정이의 꿈이 대학교수이어서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이다.

(5) 토론결과의 적용

토론한 내용을 평가한 후 학습했던 내용을 다른 문제나 상황에 적용한다. 지금까지 탐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여 다른 문제 상황이나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일반화한다. 어린이들이 어떤 경우에 행복함을 느끼는지를 이야기하고 내가 만약 행복한 청소부 아저씨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와 그런 선택을 한 이유를 말한다. 그리고 청소부로 남은 아저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대학교수로 간 아저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를 상상해 본다. 그리고 아저씨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는지를 같이 생각해보면서 마무리를 한다.

V. 결 론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갖는 것보다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들에게 사고 능력을 키워 주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어린이의 사고 능력은 단순히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암기하는 수동적인 데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때 사고 능력이 키워진다.

어린이들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재치있고 기발한 대답을 한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살면서 느끼는 의문이나 어른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도 경험과 지식이 누적되고, 깊이 있는 사고가 가능해지면 나름대로 최적의 답을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는 비판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철학적 탐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서는 어린이들의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해 철학적 사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립맨과 매튜스는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피아제가 어린이의 사고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 주요 근거는 어린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도 타인을 배려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바른 선택은 올바른 사고에 의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철학교육은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철학교육은 나름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굳어지기 이전인 어린이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철학이 어려운 이론과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문이라면 어린이에게도 철학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철학교육은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쉽고 친숙하게 다가가야 한다.

동화는 어린이들과 친숙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텍스트이다. 동화에는 어린이의 삶과 고민, 생활 등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동화 속에는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와 철학적 논쟁거리가 들어 있다. 그러한 동화를 매개체로 해서

질문하고 철학적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어린이들은 생각하는 힘, 즉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철학적 사고를 통하여 어린이들은 추론 능력 향상, 창조성의 계발, 개인과 대인 관계의 성장, 윤리적 지성의 계발, 자신의 경험 중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의 계발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 철학개발 연구소(IAPC)’에서 나온 철학동화는 이야기 형식을 취하면서 어린이 철학교육에 접근하고 있고, 유치원부터 12학년(우리나라의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나누어서 그 학년에 맞는 철학동화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IAPC에서 만든 철학동화는 우리 교육 현실과 그 단계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문화적 이질감을 심어줄 수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논자는 어린이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동화를 이용해서 대화하고 철학적 탐구 공동체를 형성하여 토론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의 철학적 사고를 향상시키려고 시도해 보았다.

행복에 대한 의미지도를 그려보고, 『행복한 청소부』를 읽고 대화법을 이용하여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토론 거리를 정할 때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지속적인 훈련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토론 주제를 정한 후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할 때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을 하기 위해 토론규칙을 정하고 진행하였는데 효과적이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이어서 생각의 변화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깊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기보다는 함께 토론하여 서로의 생각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통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동화를 읽고 대화하고 토론을 하는 활동에서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교사 스스로 논리적 사고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오랜 경험과 노력이 요구된다. 동화를 선정하고 그 안에서 철학적인 논쟁을 찾아서 대화와 토론을 유도해야 하는 교사는 사전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철학교육이 어렵고 생소하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우리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교육임을 인식한다. 그리고 철학적 사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

로, 꾸준한 지도와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바른 어린이 철학교육을 위해 힘써야 할 때이다.



<<참고 문헌>>

[단행본]

- 강봉수, 『한국 전통 도덕 교육론』, 한국학술정보, 2007.
- 김유철,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작은이야기, 2005.
- 노경실, 『동화책을 먹은 바둑이』, 사계절, 1997.
- 다지마 신지, 『바다로 간 가우디』, 김미월 옮김, 계수나무, 2004.
- 송명자, 『발달심리학』, 학지사, 1995.
-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김진성 역주, 이제이북스, 2007.
- 이정호, 『행복에 이르는 지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이초식, 『논리교육』,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 이초식, 『해방 50년의 한국 철학』, 철학과현실사, 1996.
- 정기철, 『읽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 역락, 2000.
- 조관성·정은해 공저, 『동화를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 교육과학사, 2008.
- 조월례, 『아이 읽기, 책읽기』, 사계절, 2005.
- 황정현, 『동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박이정, 2007.
- E. 마르텐스, 『어린이와 함께 철학하기』, 박승익 옮김, 지리소, 2000.
- G. B. 매튜스, 『어린이를 위한 철학 이야기』, 황경식·김성옥 옮김, 샘터, 1988.
- G. B. 매튜스, 『어린이와 함께 하는 철학』, 서울교육대학 철학연구동문회 옮김, 서광사, 1987.
- H. L. 프리제, 『아이들은 철학자다』, 이재영 옮김, 솔, 1993.
- J. 피아제, 『아동의 언어와 사고』, 송명자 외 옮김, 중앙적성출판사, 1985.
- M. 립맨 외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 서울교육대학 철학연구동문회 편역, 서광사, 1987.
- M. 립맨 외, 『세살 철학 여든까지』, 여훈근 외 옮김, 정음사, 1986.
- M. 페트, 『행복한 청소부』, 김경연 옮김, 풀빛, 2000.
- R. 데카르트, 『방법서설』, 이현복 옮김, 문예출판사, 2006.

[논문]

- 강은미, 「어린이 철학교육 방법의 한 모형」,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8.
- 김회용, 「소크라테스 교수법에 관한 논의」, 『교육학 연구』, 제37권 제1호, 한국교육학회, 1999.
- _____, 「어린이 철학교육의 방법론 및 도덕교육에의 활용」, 『초등교육연구』15권 2호, 한국초등교육학회, 2002.
- 문계연, 「어린이 철학교육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박민규, 「어린이 철학교육과 초등논술교육」, 『철학논총』43, 새한철학회, 2005.
- 박소연, 「초등학교 ‘읽기’교과서의 철학교육적 접근」,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 박윤화, 「사고력향상을 위한 어린이 철학교수법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 박인정, 「어린이 철학교육의 가능성 탐색」,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박정희, 「초등 논술교육을 위한 방법론」, 『철학논총』제57집, 새한철학회, 2009.
- 신원우, 「초등학교 철학교육의 한 모형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 이규희, 「천자문의 철학적 사유형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2.
- 이명숙, 「토의학습을 통한 비판적 읽기 지도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이선영, 「철학적 탐구공동체와 도덕교육」,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이인혜, 「어린이 철학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방법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임윤정, 「어린이 철학교육의 방법론을 교과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가?」, 『철학논총』55, 새한철학회, 2009.
- 조미옥, 「초등학교에서 철학교육의 가능성 탐색」, 창원대학교 대학원, 2001.
- 진중부, 「유치원 철학탐구 활동에서 동화 만들기의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3.
- 표은아, 「동화에서의 동시성적 표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8.
- 허필남, 「생각 키우기를 위한 철학동화 토론 활동에 관한 반성적 실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Abstract

A Study on Philosophy Education for Children by Tale Reading

Kyoung-Sun Yoon

Department of Philosophy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for children to make balanced decisions in the deluge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it is required to be a person with the ability to think creatively rather than to deliver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this end, it is the most important to develop children's ability to think. However, children's ability to think can be promoted by calling into questions actively and trying to solve the questions for themselves, not by simply receiving and memorizing the given things.

Children tend to answer the questions cleverly, asking continuously with pure curiosity toward the world. In addition, they try to find answers to questions that they are eager to know or that the grown-ups raise. They are able to find the correct solutions when they can think deeply with experience and knowledge accumulated.

However, there are arguments that children cannot dive into philosophy because they mainly rely on adults, which makes them insufficient to the ability to think. Especially, The 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by Piaget argues that children are short of the ability to think philosophically. Lipman & Matthew raised an objection against Piaget, saying that he underestimated children's ability to think while acknowledging the 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to

some extent. The main reason is that children can be considerate of others altruistically through conversation.

Right decision can be made by right thinking so that philosophy education is needed in childhood. It is desirable to start philosophy education from childhood before one's values and the way of thinking become hard. Thus, children should learn philosophy because philosophy is the study for promoting the ability to think independently. Many philosophers say that the way of thinking should be developed rather than philosophy itself. Therefore, philosophy education for children can be done not by memorizing ideas but by approaching them with ease.

The tales are the familiar texts for children which contain episodes from their lives. The tales also have some philosophical topics to discuss. Furthermore, there are universal subjects and philosophy controversy in tales. Through questioning and answering over the tales, children can learn how to think philosophically. By doing so, children can acquire thinking power which is connected with inferential ability, creativity, sociability, ethics, and abilities to find some meaning in experiences.

Featuring the format of telling stories, the tales from IAPC presented some philosophical tales which can cover from kindergarten children to 12 grade students. However, the tales from IAPC are not suitable for teaching Korean students because of the social-cultural differences. I, the writer tried the philosophical inquiry with the tales familiar to Korean children in groups.

This is the time for children to study philosophy, breaking the stereotype that philosophy is hard.